

32장. 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샀

32-33장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데,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그 내용을 가르쳐 준다.

1. 옥에 갇힌 예레미야 (32:1-5)

시드기야 10년, 곧 588/7년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. 갇힌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기 때문이다(참조. 37:11-21).

2. 아나돗의 밭을 사는 예레미야 (32:6-15)

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무르는 일을 한다. 그의 사촌 하나멜의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매매하고 증서를 써서 그 절차를 마쳤다(32:6-15).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돌아올 것을 확실히 증언하는 성격을 지닌다.

3. 예레미야의 기도와 응답

1) 예레미야의 기도 (32:16-25)

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고 멸망을 예언한 상황에서 밭을 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.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목전에 둔 사실을 아뢰고, 이때에 아나돗 땅을 사게 하고 증인을 세우라고 명하신 뜻을 묻는다(32:16-25).

2) 응답 - 느부갓네살을 통한 심판과 회복 약속 (32:26-44)

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선언하신 후에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신다. 첫째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이다.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공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심판하는 일이라고 하셨다(32:26-35).

둘째, 심판 후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.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'영원한 언약'을 세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할 것이다.

32:38-41의 말씀은 31:31-34의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.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땅에 다시 심을 것인데(32:41),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은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확실한 전례가 된다.

32장 익힘 문제

1. 예레미야가 유다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? (3-5절)
2. 1)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말씀을 좇아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은 17세겔을 주고 무엇을 샀습니까? (8-15절)
2)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15절에서 찾아 써 보십시오.
3.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였습니까? (24, 25절)
4.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정으로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무엇을 세우시기 때문입니까? (40절)
5.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? (44절)